

## 변리사스쿨 11월 전국모의고사 정오표

과목	번호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산업재산권법	21	정답	④	③, ④

### 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

#### [2번] Q.

정답은 3번 선지이나 4번 선지의 문장이 불분명하게 쓰여 있어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4번 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 인정되어야 한다' 부분 내에 진보성을 부정해야 하는지, 인정해야 하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지가 제시한 조건 하에 진보성을 인정하느냐고 묻는지, 부정하느냐고 묻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설의 원문이 된 관례 2009후1897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선지가 제시한 조건 하에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4번 선지는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로 문장이 끝나 진보성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한 관례의 논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출제오류라고 가정하면 4번 선지의 원래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되고, 특히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 같은 상황에 부정/긍정의 결론만을 뒤집은 선지가 빈번하게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출제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관례의 태도와 비교해 옳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문제의 조건(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에 따라 4번 선지 역시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문항의 4번 선지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조현중 변리사님 관례강의에서 강조된 부분처럼 본 지문은 진보성 언급이 아니고 2 이상의 선행문헌으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이의신청에 대해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21번] Q.**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3,4번 모두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하여 복수정답 같습니다. 출처표시기능은 상표의 기능 중 본질적 기능이며, 해설지에도 자타상품식별기능이 본원적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 정답 오류 같습니다.

**답변) ③, ④ 복수정답.**

**자연과학개론 이의신청 내용**

**[1번] Q.**

해설에  $v_x=2+t$ 라고 되어 있는데  $V_x=t$  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풀이 같은데 확인 바랍니다.!

**답변)**

문제 지문 : A가 바라본 B의 속도  
따라서, x 방향의 xy평면에 대한 속도(실제 속도)는  $t+2$ 가 맞습니다.

**[5번] Q.**

해설에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라 답이 1번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강 간섭이면 반파장의 짝수배 아닌가요?

**답변)**

거울면에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납니다. 5회의 고정단 반사가 있었으므로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반사 없이 진행한 단색광과 경로차가 반파장 등이 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